

주간 통일정세

2017-31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7.29	北 “국제인권기구 내정간섭 단호히 배격”(연합뉴스)	
	7.30	北, ‘화성-14’ 2차 시험발사 경축하며 내부결속 강화(연합뉴스)	
	7.31	北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자축연회…김정은 부부 참석(연합뉴스)	
	8.1	北 매체, ‘미·러 갈등’ 연일 부각 눈길(연합뉴스)	
	8.3	北, 영화 ‘군함도’ 거론하며 핵개발 정당성 강변(연합뉴스)	
군사	7.29	北, 28일 밤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 동해로 발사(연합뉴스) 美 국방부 “北 미사일은 ICBM·1천km 날아 동해 낙하”(연합뉴스) 北 “화성-14 2차 발사 성공”…김정은 “ICBM 기습발사 능력과시”(연합뉴스)	
	7.29	北, 화성-14형 발사영상 공개…또 지상 거치 발사(연합뉴스) 러 전문가 “北 발사 미사일 사거리 8천km 이상 ICBM 추정”(연합뉴스) 한미, 北도발 6시간만에 동해안서 탄도미사일 발사 무력시위(연합뉴스) 한·미, 미사일 탄두중량 증대 협상 개시키로(연합뉴스)	
	7.30	美 전문가들 “北 ICBM 저지 수단 많지 않아…재진입 여전히 난제”(연합뉴스)	
	8.1	美 전문가 “北 ICBM 재진입 실패…내년엔 美 타격 실전배치 가능”(연합뉴스) “전례 없는 北 잠수함 활동 감지…또 미사일 사출시험”(연합뉴스)	
	8.2	美 전문가 “北, 2025년께 고체연료 ICBM 개발 가능”(연합뉴스) 주한미군, 北 ICBM급 도발 직전 군산기지에서 패트리엇 훈련(연합뉴스)	
	8.3	美 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 성공…태평양 해상 목표물 명중(연합뉴스) 軍, ‘北 포격도발 원점’ 탐지레이더 개발…내년 실전배치(연합뉴스)	
	8.4	中전문가 “北 내년초 핵탑재 가능 ICBM 생산 가능할것”(연합뉴스) 美, 해상 MD 레이더로 중거리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성공(연합뉴스)	
	경제	8.1	“北 6월 中서 비료 수입량, 작년보다 11배 늘어”(연합뉴스)
		8.2	러 극동서 북한인 외화 밀반출 시도 이어져(연합뉴스)
		8.3	北 대외교역 내역보니…‘중국없이 못살아’…의존도 3년째 90% ↑(연합뉴스)
8.4		北, 제재국면 속 경공업 분야 ‘혁명의 2대전선’ 강조(연합뉴스)	
사회 문화	7.30	북한 최고 피서지는 문수물놀이장…해수욕장행 열차도 운행(연합뉴스)	
	7.31	짧은 치마·손잡고 활보하는 연인…“북한 세대격차 심화”(연합뉴스)	
	8.2	北, 백두산 화산분출 가능성에 관심…학술회의 개최(연합뉴스)	

외교 국방	8.3	北, 3D 게임 잇따라 내놔... '북한판 피파'도 등장(연합뉴스)
		평양에 저가 연쇄점 '미니소' 진출... 특권층 고객 열광(연합뉴스)
	8.4	"김일성·김정일 동상 올해에만 10여곳에 건립"(연합뉴스)
	7.29	EU "北미사일 발사,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연합뉴스)
		프랑스, 北 미사일 발사 규탄... "국제사회 의무 준수하라"(연합뉴스)
	7.30	조선신보 "北, 전향적 행동때까지 탄도탄 세례 안 멈출 것"(연합뉴스)
		北 신문 "어떤 압박도 안통해... 미국의 제재책동 파산"(연합뉴스) 北 외무성 "美, 제재책동 매달리면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연합뉴스)
	7.31	北 신문 "美 적대정책 철회까지 연속 타격... 성과 계속 볼 것"(연합뉴스)
		美 공군사령관 "북한에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준비돼있다"(연합뉴스)
		美 파인스타인 의원 "北,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연합뉴스)
		北, 美 B-1B 한반도 출동 보도... "핵전쟁 연습"(연합뉴스) 파키스탄·방글라, 北미사일 발사 비난... "안보리 결의 지켜라"(연합뉴스)
	8.1	北 외무성,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 비난(연합뉴스)
	8.2	"北 정찰총국도 힐러리 캠프 해킹 시도... 외곽 자문그룹 뚫려"(연합뉴스)
		그레이엄 의원 "트럼프 '북핵 지켜보느니 전쟁하겠다'고 말해"(연합뉴스)
		美 '北 여행금지' 온라인 게시... 언론인·구호활동가엔 허용(연합뉴스)
		틸러슨 美 국무 "어느 시점에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연합뉴스)
		백악관 "모든 대북옵션 테이블에 있어... 필요한 일 하겠다"(연합뉴스)
		베트남, '전통우방' 北에 "안보리 결의 지켜라"... ICBM 발사 비판(연합뉴스)
		北 "美, 대북정책 전환 또는 종말 선택해야"(연합뉴스)
		미국무부 "틸러슨, 北 리용호 안 만난다... 대북 압박 강화"(연합뉴스) 두테르테 "김정은 개XX... 위험한 장난감 갖고 놀고 있다"(연합뉴스)
8.3	美 '北 여행금지' 9월1일 발효... "미국인, 그전에 北 떠나야"(연합뉴스)	
	北신문 "새로운 현실, 美 백기 들고 대북정책 바꿀것 재촉"(연합뉴스)	
	北외무성 "美 일빠진 장난질하면 핵무력 맛보게될것" 위협(연합뉴스) 미국무부 "아세안 회의서 北 회원 자격 정지 논의할 것"(연합뉴스)	
8.4	北, 북·러·이란 제재 발효에 "우리엔겐 안 통해"(연합뉴스)	
	미국무부 '대화론' 툰다운... "北 갈 길 멀다"(연합뉴스)	
	北, 美 여행금지조치 비난... "비열한 교류제한 책동"(연합뉴스)	
	RFA "에어프랑스, 北 주변 비행금지구역 확대"(연합뉴스) 에티오피아 "北대사관·공관원 은행계좌 제한할것"(연합뉴스)	

	<p>국제농업생명과학센터, 北서 4개년 과수 병충해 관리사업(연합뉴스)</p> <p>말레이 체류 北근로자, 100명 아래로 줄어…대부분 수도권 거주(연합뉴스)</p> <p>北 “2005~2016년 탈북후 귀환여성 6천473명…대다수 미처벌”(연합뉴스)</p>
---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7.31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성공 경축 연회	-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7. 31.

- 北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지축연회…김정은 부부 참석(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성공 경축 연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가 30일 목란관에서 마련한 연회에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참석했다고 밝힘.
 - 통신은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 노동당의 병진노선을 높이 추켜들고 전략적 핵무력 강화의 성스러운 길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움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최후승리의 신심과 낙관을 안겨주고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에게 철퇴를 안긴 로케트개발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답례를 보내시었다”고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다. 주요 기관 행위

2017. 8. 2.

- 北, 백두산 화산분출 가능성에 관심…학술회의 개최(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일 북한이 백두산 화산분출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관련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전국 지진 및 화산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2일 양강도 삼지연군에서 진행되었다"고 전했으며,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등의 과학자, 기술자, 교수들이 참석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이어 "발표회에서는 지진 발생과 백두산 화산분출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 견해를 세우고 관측 설비들의 현대화를 다그쳐 지진 및 화산 관측과 예측의 정보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십 건의 가치 있는 논문들이 제출되었

다"고 밝힘.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7. 29.

■ 北 “국제인권기구 내정간섭 단호히 배격”(연합뉴스)

- 북한이 미얀마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의 비판을 반박하며 국제인권기구의 내정간섭 배격을 주장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최근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이 로힝야족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면서 미얀마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함.
- 대변인은 “우리 공화국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들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배격하며 평화로운 민주주의적 연방제국가를 건설하려는 미얀마 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 밝힘.

2017. 7. 30.

■ 北, ‘화성-14’ 2차 시험발사 경축하며 내부결속 강화(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28일 실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2차 시험발사를 대대적으로 경축하며 내부 결속 강화를 꾀하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자 신문 1~2면을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성공에 대한 각계 인사들의 반응과 기뻐하는 주민들의 사진, 관련 논설 등으로 채움.
-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신문 1면에 게재한 글에서 “은 세계를 뒤흔든 장쾌한 승전 포성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오늘의 민족사적 승리를 최후 승리로 줄기차게 이어나갈 신념과 의지를 백배해주고 있다”고 주장함.

2017. 8. 1.

■ 北 매체, ‘마러 갈등’ 연일 부각 눈길(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시한탄을 안고 있는 러·미 관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이에 대응한 러시아의 미국 외교관 무더기 추방 및 미국 외교자산 압류 조치 등을 배경과 함께 자세하게 소개함.

- 조선중앙통신도 지난달 27일 미·러 갈등 양상을 전하며 “미국이 독선적인 대외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으로 하여 러·미 사이의 외교 분쟁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주장함.
- 또 노동신문은 지난달 24일 ‘러시아를 압박하는 군사적 움직임’이라는 정세해설 기사에서 “미국은 러시아 주변 나라들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한편 해마다 나토 무력을 동원하여 흑해와 그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연습들을 빈번히 벌여 놓으며 이 나라(러시아)를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신문은 “만일 러·미가 지금처럼 계속 나간다면 종당(결국)에는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덧붙임.

2017. 8. 3.

■ 北, 영화 '군함도' 거론하며 핵개발 정당성 강변(연합뉴스)

- ‘메아리’는 3일 '영화 군함도와 민족의 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군함도의 흥행 배경에 대해 "범죄적인 과거를 부정하고 군국주의 부활로 질주하는 일본 반동들에 대한 민족의 분노와 직결되어 있다"고 주장함.
- 이 매체는 "백여 년 전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고 식민지 노예가 되어야 하였던 것은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오늘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에 대한 물리적 담보는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북과 남이 하나로 단합하여 민족의 굳게 뭉친 힘으로 외세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분쇄하여야 한다"면서 핵 개발 정당성을 거듭 주장함.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7. 29.

■ 北, 28일 밤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 동해로 발사(연합뉴스)

- 북한이 28일 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함.
-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어제 오후 11시 41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힘.
- 합참은 “대통령에게는 관련 사항이 즉시 보고됐으며 NSC는 오늘 새벽 1시 개최

예정”이라고 덧붙임.

■ **美 국방부 “北 미사일은 ICBM…1천km 날아 동해 낙하”(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이 발사한 비행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확인함.
-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 미사일은 예상했던 대로 ICBM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으며, 이어 “미사일은 (자강도) 무평리에서 발사돼 동해에 떨어지기까지 약 1천km를 비행했다”면서 “관계기관들과 협업해 상세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국이 1천km를 비행하는 데 그친 북한 미사일을 ICBM으로 평가한 것은 북한이 상당히 높은 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해 도달 거리를 줄였다는 의미로 풀이됨.

■ **北 “화성-14 2차 발사 성공”…김정은 “ICBM 기습발사 능력과시”(연합뉴스)**

- 북한은 “28일 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서 “화성-14형은 최대정점고도 3천724.9km까지 상승하며 거리 998km를 47분12초간 비행하여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29일 주장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친필명령’으로 이번 시험발사 실시를 직접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실제 최대사거리 비행조건보다 더 가혹한 고각발사 체제에서의 재돌입 환경에서도 전투부(탄두부)의 유도 및 자세조종이 정확히 진행됐으며 수 천 도의 고온조건에서도 전투부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핵탄두 폭발조종장치가 정상동작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안정적인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음을 주장함.

■ **北, 화성-14형 발사영상 공개…또 지상 거치 발사(연합뉴스)**

- 북한은 이번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차량형 이동식발사대(TEL)로 옮겨 지상 발사대에 거치한 뒤 쏜 것으로 확인됨.
- 조선중앙TV는 28일 자정 무렵 감행한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영상을 편집해 29일 공개했는데, 약 2분 30초 분량의 이 영상이 보여준 화성-14형의 발사 방식은 지난 5일 공개한 1차 시험발사 영상과 비슷함.
- 북한이 화성-14형 시험발사에서 선보인 발사 방식은 이동식발사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동식발사대로 미사일 추가 발사를 시도할 수 있어 전술적으로도 이점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

■ **러 전문가 “北 발사 미사일 사거리 8천km 이상 ICBM 추정”(연합뉴스)**

- 모스크바의 유력 군사전문가인 블라디미르 예브세예프 ‘독립국가연합’(CIS: 옛 소련국가 모임) 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미 당국 자료를 볼 때 2차로 발사된 화성-14형 미사일의 정점 고도는 3천700km로 이달 초 처음 발사된 화성-14형의 고도(2천800km)보다 약 900km가 더 늘어났다”며 “초고각이 아닌 정상고각 발사 사거리로 환산하면 미사일이 8천6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함.
- 그는 “이 같은 사거리는 중거리탄도미사일 사거리(4천~6천km)를 넘어 ICBM 사거리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 하와이나 알래스카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사거리”라고 소개하며, “북한이 미사일 기술에서 또다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 북한이 ICBM의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re-entry) 기술을 확보했는지에 대해 예브세예프는 “열보호막 기술 등 핵심 기술은 이미 갖고 있다고 봐야 하지만 기술 수준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함.

■ **美 전문가들 “北 ICBM 저지 수단 많지 않아…재진입 여전히 난제”(연합뉴스)**

- 미국의 북핵 문제 전문가들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방지한다면 결국엔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핵을 운반할 ICBM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북한이 ICBM 개발에 속도를 가하고 있는데도 이를 저지할 뚜렷할 수단이 별로 없다는 데 대해 일제히 큰 우려를 표함.
- 다만 이번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ICBM 능력이 크게 진전되긴 했지만, 실전 배치의 핵심 관건인 재진입체 기술의 성공 여부는 여전히 가늠할 수 없고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이 모임.

2017. 8. 1.

■ **美 전문가 “北 ICBM 재진입 실패…내년엔 美 타격 실전배치 가능”(연합뉴스)**

- 북한이 이르면 내년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배치할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는 미국 국방부 보고서 전망에 대해

31일(현지시간) 미국의 정통한 미사일 전문가도 적극적으로 동의함.

- 이 전문가는 북한이 지난달 28일 2차 시험 발사한 ‘화성-14형’을 두고서는 대기권 재진입(re-entry)에 실패했다고 분석하며, 북한이 추가로 발사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봄.
- 국제전략문제연구소(ISS)의 마이클 엘먼 선임연구원(미사일 방어 분야)은 이날 존스홉킨스대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보고서의 전망을 언급하면서 “김정은이 어떤 기준을 설정했는지에 달렸지만, 내년에 (미 본토에 도달할 ICBM의) 조기 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전례 없는 北 잠수함 활동 감지…또 미사일 사출시험”(연합뉴스)

- 미군은 “매우 특이하고 전례 없는 수준”의 북한 잠수함 활동과 추가 미사일 사출시험의 증거를 감지했다고 CNN 방송이 31일(현지시간) 보도함.
- 익명의 미군 관계자는 이 방송에 북한이 30일 신포 조선소에서 미사일 ‘콜드런치’(cold-launch·냉발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사출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힘.
- 특히 이번 사출시험은 북한이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쏘아 올리는 등 7월에만 두 번의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한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미국의 안보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지상 기반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모두 개발한다면 ‘핵전략 삼위일체’(Strategic Triad)에서 전략폭격기를 이용한 미사일 공중 투하를 제외한 2개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임.

2017. 8. 2.

■ 美 전문가 “北, 2025년께 고체연료 ICBM 개발 가능”(연합뉴스)

- 미국 항공우주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 존 실링 연구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관련해, 북한이 기술 고도화를 지속한다면 2025년께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고체연료 ICBM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전망함.
- 미사일 전문가인 실링 연구원은 1일(현지시간) 미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현재의 액체연료 ICBM, KN-20은 고체연료 ICBM 개발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며 이같이 내다봄.
- 그는 북한이 지난달 4일과 28일 각각 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에 대해 1차 미사일의 재진입체 무게는 500kg이지만, 2차 미사일은 이보다 적은 300kg에

그친 것으로 분석함.

2017. 8. 4.

■ **中전문가 “北 내년초 핵탄재 가능 ICBM 생산 가능할것”(연합뉴스)**

- 북한이 내년 초까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중국 전문가가 전망함.
- 리자칭 중국 랴오닝(遼寧)대 연구원은 3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실린 평론에서 "북한이 최근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면서 "북한은 내년 초까지 신뢰할만한 핵무기 탑재 가능 ICBM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인해 북한이 미국의 도시들에 원자 폭탄으로 타격할 수 있는 시간표가 급격히 줄어들게 됐다"고 주장함.

나. 한국 및 미국

2017. 7. 29.

■ **한미, 北도발 6시간만에 동해안서 탄도미사일 발사 무력시위(연합뉴스)**

- 한미 양국 군은 29일 새벽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하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음.
-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 미사일 부대는 오늘 오전 5시 45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동해안에서 2번째 한미 연합 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힘.
- 합참은 “이날 사격에는 한국군의 현무-2와 미 8군의 ATACMS(에이태킴스)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표적에 정확히 명중시킴으로써 유사시 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하는 한미 연합전력의 대응능력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강조함.

■ **한·미, 미사일 탄두중량 증대 협상 개시키로(연합뉴스)**

- 청와대는 29일 한·미 양국이 사거리 8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늘리기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힘.
-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은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을 500kg에서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중량을 놓고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면서도 “미국도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공감하는 만큼 (탄두 중량이) 무거울수록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함.

2017. 8. 2.

■ 주한미군, 北 ICBM급 도발 직전 군산기지서 패트리엇 훈련(연합뉴스)

- 주한미군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앞두고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공중 파괴하는 패트리엇 무기체계 운용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됨.
- 2일 미 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주한 미 8군 예하 제1방공포병연대 병력은 지난 달 23일부터 한 주 동안 군산 공군기지에서 패트리엇 운용 실기동훈련(FTX)을 실시함.
- 훈련은 적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을 가정해 패트리엇 무기체계에 신속히 병력을 배치하고 운용 능력을 숙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2017. 8. 3.

■ 美 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 성공··태평양 해상 목표물 명중(연합뉴스)

- 미국 공군이 2일(이하 현지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Minuteman) 3' 시험발사에 성공함.
- AP통신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abc방송 등에 따르면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는 이날 오전 2시 10분 캘리포니아 주(州) 샌타바버라 북서쪽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니트맨 3를 발사해 약 4천200마일(약 6천759km)을 날아 중부 태평양 미크로네시아 동부 마셜군도의 과절린 환초(環礁)를 명중시켰다고 밝혔음.
- 미니트맨 3는 무게 35t, 최고 시속 마하 23, 3단 고체연료 추진형이며, 단발 테스트 재진입 비행체로 구성돼 있고, 최대사거리가 1만3천km로, 미 서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평양까지 도달할 수 있음.

■ 軍, '北 포격도발 원점' 탐지레이더 개발··내년 실전배치(연합뉴스)

- 북한군의 포격 도발시 '도발 원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우리 군이 즉각 대응 사격할 수 있게 해주는 '대포병 탐지레이더-II'의 국내개발이 완료됨.
- 대포병 탐지레이더-II는 지난 4월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데

- 이어 제작 기준이 되는 국방 규격도 정해졌으며, 내년 초 양산에 들어가 순차적으로 전방 부대에 실전배치될 계획임.
- 방사청은 "대포병 탐지레이더-II가 전력화되면 기존 해외 도입 장비보다 탐지 범위, 작전 지속 시간, 동시 표적 처리 능력 등이 크게 향상돼 대화력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정비와 후속 군수 지원이 용이할 뿐 아니라 운영유지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2017. 8. 4.

■ **美, 해상 MD 레이더로 중거리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성공(연합뉴스)**

-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잇달아 실시해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이 최신 레이더로 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탐지 추적하는 시험평가에 성공함.
- 미 해군 해상시스템사령부(NAVSEA)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하와이 카우아이 섬 태평양 미사일 사격시설에 배치된 차세대 해상기반 'AN/SPY-6(V) AMD R' 방공·미사일 방어 레이더로 중거리탄도미사일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고 3일 밝힘.
- 미국은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커짐에 따라 전 세계적 차원의 미사일방어체계를 첨단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2017. 8. 4.

■ **北, 제재국면 속 경공업 분야 '혁명의 2대전선' 강조(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3일 '국방과학전사들처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공업 부문에서 질 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내는 것은 단순히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다"라며 "인민들에게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체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 깊이 심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고 강조함.
- 이어 "오늘날 경공업 공장들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제품들은 그 하나하나가 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인 초강도 제재 책동에 무자비한 파열구를 내는 '주체탄'으로

되어야 한다"며 "우리 당이 경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국방과학 전사들과 함께 우리 혁명의 2대 전선에 내세워준 것도 그 때문"이라고 밝혔음.

나. 경제 실태

2017. 8. 2.

■ 러 극동서 북한인 외화 밀반출 시도 이어져(연합뉴스)

-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서 2일(현지시간) 세관 신고없이 미화 1만1천460 달러(약 1천280만 원)를 수하물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북한 여성이 세관원에 적발됐다고 현지 언론 '블라드뉴스'가 전함.
- 이에 앞서 사흘 전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평양으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한 북한인이 미화 1만3천300달러와 중국 위안화 200위안(약 3만 원)을 밀반출하려다 공항 세관에서 붙잡힌 바 있으며, 지난 6월 말에도 역시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에서 종이박스에 미화 10만 달러를 넣어 포장해 약품이라고 속여 몰래 갖고 나가려던 북한인이 적발된 바 있음.
- 이와 같이 세관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북한인들의 외화 밀반출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은행을 통한 합법적인 송금이 어려워지면서 인편으로 외화를 운송하려는 시도 때문으로 분석됨.

다. 대외 경제 관계

2017. 8. 1.

■ “北 6월 中서 비료 수입량, 작년보다 11배 늘어”(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6월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비료의 양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전함.
- VOA에 따르면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이 중국 해관총서(세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6월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 비료 1만 7천427t을 수입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수입량인 1천500여t보다 11배 이상 늘어난 규모임.
- 권 원장은 가뭄으로 북한의 올해 가을 작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금까지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은 비료를 충분히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함.

2017. 8. 3.

■ 北 대외교역 내역보니... '중국없이 못살아...' 의존도 3년째 90%↑(연합뉴스)

- 3일 베이징 소식통과 코트라 등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무역 중 국별 의존도는 2016년 중국이 92.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2014년(90.2%), 2015년(91.3%)에 이어 3년 연속 90%대를 유지함.
- 주목할 대목은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처음으로 50%를 넘었던 2005년(52.6%) 이래 지속해 늘고 있다는 점으로, 이와 관련 코트라 측은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제재에도 지난해 북중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6%가 늘었다"면서 "광물성 제품, 섬유, 철강금속, 기계 중심의 전체적인 교역 구조에 큰 변화가 없으나 지속하는 국제사회 제재 국면과 북한 수출 역량의 한계로 극단적인 대중 의존도는 지속할 전망"이라고 분석함.
- 대북 소식통은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의식해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나타난 수치만 봐도 북한의 절대적인 중국 의존을 알 수 있다"면서 "결국 북한이란 카드를 쥐고 있으려는 중국과 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라는 미국이 서로 기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라고 말함.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7. 30.

- 북한 최고 피서지는 문수물놀이장...해수욕장행 열차도 운행(연합뉴스)

- 평양에서 가장 대중적인 피서지로는 물놀이장과 수영장이 꼽히는데, 올해도 피서철을 맞아 이달 초부터 문을 연 평양 시내 물놀이장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음.
-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조선의오늘’은 지난 11일 “평양시 안의 여러 물놀이장에서 야외 물놀이장 봉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함.
- 이어 “만경대 물놀이장과 능라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수물놀이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며 특히 더위가 절정인 삼복철에는 물놀이장을 1시간 더 연장 운영한다고 소개함.

2017. 7. 31.

■ 짧은 치마·손잡고 활보하는 연인…“북한 세대격차 심화”(연합뉴스)

- 북한에서 시장 경제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AP통신이 30일 평양발 기사를 통해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과거 북한에서는 통치자가 전능한 부양자로서 무조건적인 숭배의 대상이 됐지만, 이제 성인이 된 젊은 세대는 정권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이들은 정치적 열망보다는 돈의 힘에 대한 신념이 강함.
- 북한 젊은이들에게는 밀반입된 한국 드라마 등도 세계를 바라보는 또 다른 창이 되고 있어, 이 같은 영향으로 평양에서는 과거와 달리 젊은 연인이 종종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니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 북한 보안원(경찰)의 힘이 여전히 거대한 데다 세대 격차가 정치적 이유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정권에 대한 불만 표출로 이어지지는 않음.

2017. 8. 3.

■ 北, 3D 게임 잇따라 내놔…“북한판 피파”도 등장(연합뉴스)

- ‘메아리’는 “최근 수정천기술교류사에서 개발한 3차원 오락 프로그램 '축구격전'이 사용자들 속에서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지난 2일 소개함.
- 3D 환경으로 가상현실화된 게임은 현대축구의 기술발전 추세와 특기들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 평양에 저가 연쇄점 ‘미니소’ 진출… 특권층 고객 열광(연합뉴스)

- 일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저가형 생활용품을 파는 ‘미니소’가 올 4월 평양에

- 매장을 열었는데, 북한에 외국 브랜드 연쇄점이 들어선 것은 미니소가 처음임.
-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7월 22일 자에서 “틀리는 얘기에 따르면 평양 특권층이 이 매장에 열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이코노미스트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북한 주민들의 여가와 소비 수준 향상을 내세워 대형 상가 개장, 각종 놀이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미니소의 평양 진출 허용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2017. 8. 4.

■ “김일성·김정일 동상 올해에만 10여곳에 건립”(연합뉴스)

- 북한 전역에 걸쳐 김일성·김정일 동상 건립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함.
-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각 주요 도시와 대학, 박물관, 사적지, 군부대에 이르기까지 김일성·김정일 동상 건립 개수와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에만 이미 10여 곳에 동상이 세워졌다"고 RFA에 밝힘.
- 이어 "위성사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일성·김정일의 동상과 기념탑 건설은 김정은 정권의 우선 정책이었다"며 "북한 공군·해군사령부 등 최고 지휘부는 물론 제630부대, 제593부대, 제526부대 등 하급 부대에도 김 부자의 동상이 들어섰다"고 전함.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7. 30.

■ 조선신보 “北, 전향적 행동때까지 탄도탄 세례 안 멈출 것”(연합뉴스)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29일 밝힘.
- 조선신보는 ‘연발적인 탄도탄 세례, 미국이 잘못 뉘우칠 때까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이 조선에 대한 전략적 시각을 바꾸어 전향적 행동을 일으킬 때까지 미국의 면상을 후려칠 탄도탄 세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함.

- 신문은 “시험발사의 성공으로 조선이 핵전쟁 위협의 장본인인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이 보다 뚜렷이 실증되었다”면서 “미국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핵전략 무력을 차근차근 보여주는 끈질긴 탄도탄 세례가 계획되고 이미 실행되고 있다”고 전함.

■ 北 신문 “어떤 압박도 인통해…미국의 제재책동 파산”(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2차 시험발사 성공 이후 “미국의 제재책동은 완전히 파산되었다”며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무용론을 주장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그 어떤 압박도 통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미제가 발악하면 할수록 (핵·경제) 병진 노선을 더욱 역세계 틀어쥐고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면서 경제강국 건설을 줄기차게 다 그쳐 나가려는 우리 천만 군민의 의지는 배가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신문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이 핵무기는 물론 대륙간탄도로켓까지 보유하게 되자 그 책임을 다른 나라들에 뒤집어씌우면서 모순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가 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동원하여 제재를 확대하려 하면서 독자적인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며 “그럴수록 미국의 취약성만을 드러낼 뿐”이라고 비난함.

■ 北 외무성 “美, 제재책동 매달리면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연합뉴스)

- 북한은 30일 “미국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모험과 초강도 제재책동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의 성공적인 대륙간탄도로켓 2차 시험발사를 눈여겨 보았을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미국이라는 침략국가도 무사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지난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와 관련, “이번에 굳이 대륙간탄도로켓의 최대 사거리 모의 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은 최근 분별을 잃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재압박 소동에 미쳐 날뛰며 객쩍은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주장함.

2017. 7. 31.

■ **北 신문 “美 적대정책 철회까지 연속 타격…성과 계속 볼 것”(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2차 시험발사 성공과 관련해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지속해서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할 것임을 위협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민족사적인 대승리를 안아온 긍지 드높이 연속 공격 앞으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세계는 모진 광풍과 시련 속에서도 더 높고, 더 빨리 비약하는 주체 조선의 눈부신 성과들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호언함.
- 신문은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성공이 “미제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우리 민족에게 들쭉은 고통에 대하여 무릎 꿇고 사죄할 때까지 연속 타격전을 들이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 신념의 힘 있는 과시”라고 주장함.

■ **美 공군사령관 “북한에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준비돼있다”(연합뉴스)**

- 테런스 오쇼너시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30일(현지시간) “필요하다면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빠르고, 치명적이고,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함.
- 오쇼너시 사령관은 이날 한반도 상공에서 진행된 한미 폭격기 훈련을 마친 뒤 성명을 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관련해 이같이 경고했다고 미 폭스뉴스가 보도함.
- 오쇼너시 사령관은 “외교가 여전히 앞서 있다”며 외교적 해법을 우선시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동안 우리나라와 동맹들에 확고한 헌신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함.

■ **美 파인스타인 의원 “北,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연합뉴스)**

- 미국 민주당 중진인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은 30일(현지시간) CBS 방송에 출연, 북한이 빠른 속도로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북한을 미국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함.
- 이날 ‘페이스 더 내이션’(Face the Nation)에 출연한 파인스타인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이 “동쪽으로는 시카고까지 칠 수 있다”며 “이는 미국에 명백하고 현존하

는 위협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함.

- 파인스타인 의원은 그러나 “유일한 해법은 외교적인 것”이라며 북한 문제는 무력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美 B-1B 한반도 출동 보도…“핵전쟁 연습”(연합뉴스)**

- 북한은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의 한반도 출동 사실을 하루 만인 31일 신속하게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를 인용, “30일 미제의 핵전략폭격기 B-1B 2대가 남조선 상공에서 공화국(북한)을 핵 선제공격하기 위한 전쟁연습에 돌아왔다”며 “이 폭격기들은 제주도 남쪽 해상과 동해를 거쳐 경기도 오산 상공에 날아들어 핵폭탄을 투하하는 훈련에 광분했다”고 전함.
- 이어 “괴뢰 공군의 F-15K 전투기들이 방패막이가 되어 미제의 핵전략폭격기들과 같이 비행하며 동족의 머리 위에 핵 참화를 들뜨우기 위한 전쟁 불장난 소동에 매달렸다”며 공군의 작전 참가를 비난함.

2017. 8. 1.

■ **北 외무성,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 비난(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1일 미국 의회에서 최근 통과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에 대해 ‘강패 행위’라고 비난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미 국회에서 우리나라와 러시아, 이란을 목표로 한 새로운 제재 법안이 채택된 데 대한 국제적 반발이 커가고 있다”라며 “세계 여러 나라를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제재 소동은 저(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파렴치한 수단”이라고 주장함.
-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 높음이 그 무법성과 파렴치성으로 세계 도처에서 규탄과 배격을 받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라며 “세계는 저들의 이해관계만을 추구하면서 때 없이 주권국가들에 제재 몽둥이를 휘둘러대는 미국의 강패 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선동함.

2017. 8. 2.

■ **“北 정찰총국도 힐러리 캠프 해킹 시도…외곽 자문그룹 뚫려”(연합뉴스)**

- 지난해 미국 대통령선거 기간 러시아로부터 조직적 해킹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캠프에 대해 당시 북한도 해킹을 시도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사이버스쿠프가 1일(현지시간) 전직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북한은 당시 캠프 내부의 서버나 이메일 계정을 뚫지는 못했지만, 외곽 자문그룹의 이메일 계정에 접근하는 데에는 성공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워싱턴DC에서 활동하는 최소한 1개 이상의 싱크탱크 직원들의 이메일을 해킹했고, 이들 싱크탱크는 클린턴 캠프의 동아시아 정책 자문 그룹과 연계돼 있음.
 - 북한 해커들은 클린턴 캠프 인사들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과 비슷한 계정으로 이들 자문그룹에 피싱을 시도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으며, 당시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해킹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임을 확신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함.

■ **그레이엄 의원 “트럼프 ‘북핵 지켜보느니 전쟁하겠다’고 말해”(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북한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 미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1일(현지시간) 미 NBC방송 ‘투데이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군사적 선택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내버려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함.
-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이 핵 탑재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서 나는 것이다.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얼굴에다 대고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함.

■ **美 ‘北 여행금지’ 온라인 게시…언론인·구호활동가엔 허용(연합뉴스)**

- 미국의 자국민 북한 여행금지 조치와 관련, 미국적 언론인과 적십자 관계자를 비롯한 인도주의 구호활동가들은 여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AP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함.
- AP는 이날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 개요가 온라인상에 게시됐으며, 2일 정식으로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함.
- 언론인과 구호활동 전문가 외에도 ‘국익을 위해’ 북한을 여행하는 경우에도 예외로 허용함.

■ **틸러슨 美 국무 “어느 시점에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어느 시점에 북한과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함.
-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핵 포기’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이달 들어 북한이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한 후 미 조야에서 대북 강경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화를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됨.
- 틸러슨 장관은 또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교체나 붕괴, 선제공격 등은 미국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도 재확인함.

■ **백악관 “모든 대북옵션 테이블에 있어…필요한 일 하겠다”(연합뉴스)**

-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도록 우리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말함.
-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모든 옵션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다만 그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는 실행하기 전까지 옵션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北 “美, 대북정책 전환 또는 종말 선택해야”(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의 잇단 발사가 미국에 보내는 경고임을 강조하며 대북적대정책의 전환을 촉구함.
- 대변인은 ‘선제공격론’을 비롯해 미국에서 확산하는 대북강경론을 거론하며 “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바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며, 미국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화성-14’ 2차 발사 당시 발언을 새겨들어야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선언’이 “미국에 보내는 선군 조선의 엄정한 중대 경고”라고 덧붙임.

■ **미국무부 “틸러슨, 北 리용호 안 만난다…대북 압박 강화”(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관련 회의에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미 국무부가 2일(현지시간) 밝혔음.

-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대행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틸러슨 장관은 마닐라에서 북한 외무상과 만날 계획이 없다"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2017. 8. 3.

- **美 '北여행금지' 9월1일 발효...“미국인, 그전에 北 떠나야”(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한다고 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함.
 -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9월 1일부터 미국 여권 소지자의 북한 입국 금지 조치가 발효된다고 이날 관보에 게재했으며, 국무부는 현재 북한에 체류 중인 미국인은 그 전에 떠나야 한다고 강조함.
- **北신문 “새로운 현실, 美 백기 들고 대북정책 바꿀것 재촉”(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3일 "미 본토가 생사존망의 칼도마 위에 오른 새로운 현실은 미 행정부가 흰 기를 들고 대조선(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분분초초 재촉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거듭 촉구함.
 - 신문은 "미국이 체면 유지를 위해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에 끈질기게 매달린다면 그로부터 받아 안을 것은 우리 국가가 연속적으로 보내주는 예상치 않은 '선물 보따리'들 뿐일 것"이라고도 호언함.
- **北외무성 “美 얼빠진 장난질하면 핵무력 맛보게될것” 위협(연합뉴스)**
 - 북한은 3일 "미국은 우리의 성공적인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운운하며 첨단전략 자산들을 조선반도에 대대적으로 들이밀면서 군사적 모험에 매여달리려 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움직임을 비난함.
 -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구린내 나는 상통을 들이밀고 핵방망을 계속 휘두르며 얼빠진 장난질을 해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준 핵전략 무력의 맛을 톡톡히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美국무부 “아세안 회의서 北 회원 자격 정지 논의할 것”(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오는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회의에서 북한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원 자격 정지

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아세안은 분쟁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집단"이라며 "ARF에서 다른 회원국과 함께 북한의 회원 자격을 정지할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손턴 대행은 ARF 회원국 대부분이 북한이 아세안 규정을 상당 부분 위반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점을 알고 있다면서 "향후 1년간(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의가 올해 열려 이러한 논의를 하기에 너무 늦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회원 자격) 중단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향후 어떤 조항이 포함되도록 할지에 대해 생각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 8. 4.

■ 北, 북-러-이란 제재 발효에 “우리에겐 안 통해”(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의 제재 소동이 다른 나라들에는 통하겠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서는 절대로 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법 조항은 우리의 다발적이며 연발적인 핵 무력 고도화 조치에 질겁한 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에 불과하다"라며 "걸핏하면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재법을 조작해내고 제재 몽둥이를 휘둘러대는 미국의 책동은 국제법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강패 행위"라고 비난함.
- 또한 "미국은 승산이 보이지 않는 대조선 제재 놀음에 힘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미국 본토 안전을 담보하는 방도가 과연 무엇이겠는가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함.

■ 美국무부 ‘대화론’ 툰다운…“北 갈 길 멀다”(연합뉴스)

-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거나 협상을 고려하기까지 북한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북한은 우리 미국과 세계에 보여줄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진지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노어트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아직 그런 시도를 보지 못했고, 한 달도 안 돼 두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만 봤다"면서 "북한은 이 시점에서 그런 시도에 진력한다는 신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압박작전은 여전히 세계 각국에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행사하라고 요구

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기조인 '최대의 압박 작전(maximum pressure campaign)'에 변화가 없음을 밝힘.

■ **北, 美 여행금지조치 비난…“비열한 교류제한 책동”(연합뉴스)**

- 북한은 4일 미국 정부의 북한여행금지조치를 인적교류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난하면서 방북을 희망하는 모든 미국인에게 문호를 열어놓을 것이라고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미 행정부가 여행금지조치 높음을 벌인 것은 공화국의 존엄 높은 권위를 헐뜯고 미국 국민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과 저들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실패상을 직접 보지 못하게 하려는 비열한 인적교류제한책동"이라고 주장함.
- 이어 이번 조치가 "우리를 적으로 보는 미 행정부의 시각의 반영"이라며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대조선 적대시정책 포기를 결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함.

나. 북·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7. 29.

■ **EU “北미사일 발사,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한 데 대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함.
- EU는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가한 제재에 따른 (북한의) 국제적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은 국제적·지역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도발 행위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함.

■ 프랑스, 北 미사일 발사 규탄…“국제사회 의무 준수하라”(연합뉴스)

- 프랑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함.
- 프랑스 외무부는 28일 저녁(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들을 중대하고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지역과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함.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다시 한 번 북한에 지체 없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완전하고 확인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요구함.

2017. 7. 31.

■ 파키스탄·방글라, 北미사일 발사 비난…“안보리 결의 지켜라”(연합뉴스)

- 비동맹 노선을 따라 그동안 북한과도 일정한 우호 관계를 맺어온 서남아시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도 지난 28일 북한의 ‘화성-14형’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 의무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난함.
- 파키스탄 외교부는 31일 성명에서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해친다”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나타냄.
- 방글라데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비판하며 북한이 지역적·세계적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행동을 중단하고,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함.

2017. 8. 2.

■ 베트남, ‘전통우방’ 北에 “안보리 결의 지켜라”…ICBM 발사 비판(연합뉴스)

- 북한의 전통 우방인 베트남이 지난달 28일 이뤄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촉구함.
- 2일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레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ICBM 시험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들 시험은 관련

-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함.
- 항 대변인은 “베트남은 일관되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화 촉진과 평화·안정 유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함.

■ 두테르테 “김정은 개XX…위험한 장난감 갖고 놀고 있다”(연합뉴스)

- '막말 정치인'으로 유명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번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향해 "바보(fool)", "개XX(son of a bitch)"으로 부르며 강하게 비판했음.
- 2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날 전국에 방송된 TV 연설에서 "김정은은 바보"라며 "위험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다"고 말하며, "그 통통하고 친절해 보이는 얼굴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며 "그가 실수하면 극동은 불모지가 될 것이다. 이 핵전쟁을 멈춰야만 한다"고 주장함.

2017. 8. 4.

■ RFA “에어프랑스, 北 주변 비행금지구역 확대”(연합뉴스)

- 프랑스 국적 항공사인 에어프랑스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 북한 주변의 비행금지구역을 확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함.
- 방송은 지난달 28일 북한 자강도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가 일본 도쿄(東京)를 출발해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여객기 AF 293편이 지나간 지 수 분 후 항공경로에서 100km 떨어진 동해 상으로 낙하했다면서 이같이 전함.
- 에어프랑스 대변인은 당시 승객 323명을 태운 AF 293편은 사고 없이 비행을 마쳤으며 에어프랑스 항공기가 북한 상공을 비행하지는 않지만 예방 차원에서 비행금지구역을 확대한다고 설명함.

■ 에티오피아 “北대사관·공관원 은행계좌 제한할것”(연합뉴스)

- 에티오피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자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은행 계좌 수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최근 밝힘.
- 4일 유엔 홈페이지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에 제출한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에서 "외교부가 현재 중앙은행과 협력해 북한 대사관 및 외교관·영사의

은행 계좌 수를 1개로 줄이는 조치를 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고 밝힘.

- 에티오피아는 또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북한 정부 구성원이나 관리, 군 관계자가 입국하거나 에티오피아를 경유하는 데 제한을 가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힘.

■ 국제농업생명과학센터, 北서 4개년 과수 병충해 관리사업(연합뉴스)

- 영국에 본부를 둔 유럽의 정부 간 기구인 국제농업생명과학센터가 북한에서 4개년 과수 병충해 관리사업을 시작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함.
- 방송은 국제농업생명과학센터가 최근 함경남도 정평군에서 4개년 계획으로 과수 병충해 관리사업을 시작했다면서 2020년 9월 말까지 진행될 이 사업은 병해충에 의한 과수원의 피해를 줄여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과일을 재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전함.
- 센터는 홈페이지에 발표한 대북사업 계획서에서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최근 몇 년간 증가했지만, 신선한 농산물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영양 상태는 여전히 열악하다"며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영양을 개선하기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말레이 체류 北근로자, 100명 아래로 줄어…대부분 수도권 거주(연합뉴스)

- 말레이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인 근로자의 수가 100명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됨.
- 4일 선데이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내무부는 전날 야당인 민주행동당(DAP) 소속 림립엥(林立迎) 하원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현재 취업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북한 국민은 모두 98명"이라고 밝힘.
- 내무부는 "북한인 체류자의 성별은 남성이 80명이고 여성이 18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75명이 있고, 슬랑오르 주에 20명, 조호르 주에 2명, 페락 주에 1명이 거주 중"이라고 설명함.

■ 北 “2005~2016년 탈북후 귀환여성 6천473명…대다수 미처벌”(연합뉴스)

- 북한이 2005년부터 작년까지 12년간 탈북했다가 돌아온 여성의 숫자를 이례적으로 유엔에 공개하고 이들을 대부분 처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남.

- 4일 유엔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오는 11월 초 실시하는 대북 국가심의를 앞두고 최근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유효한 여행허가 없이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온(returned) 여성의 수가 6천473명"이라고 밝힘.
- 북한은 답변서에서 "이중 대다수는 당시 겪고 있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나 인신매매 집단의 음모의 희생자가 되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귀환 후 드러났다"고 밝혔으며, 이어 "이 때문에 어떤 법률적 처벌의 대상도 되지 않았으며, 지금은 국가의 포용적이고 자애로운 정책 덕분에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7.29	한미 軍수뇌부, 北미사일 발사에 첫 군사대응 논의(연합뉴스)	
		한미외교장관 긴급통화...北 ICBM급 미사일 대응 협의(연합뉴스)	
	7.31	강경화-틸러슨, 8월초 회담서 확장억제협의체 정례화 논의(연합뉴스)	
	8.1	외교부 “한미, 북핵 모든 사항 어느 때보다 긴밀 공조”(연합뉴스)	
	8.2	한미일 국방당국 화상회의...“北 최대한 압박...3국협력 강화”(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7.29	中, 韓 사드 '추가 임시배치'에 “엄중한 우려” 표명(연합뉴스)	
		中매체 '北미사일'에 “중국 책임없다”...사드 불만 표출(연합뉴스)	
	8.1	中, 韓 '사드 임시 배치'에 주중대사 초치 항의(연합뉴스)	
	8.2	韓 '사드 임시배치'에 中매체들 “외교·군사 보복” 위협(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7.29	한일 외교장관도 긴급통화...北 ICBM급 발사대응 협의(연합뉴스)	

	7.31	외교부, '위안부합의 검토 TF' 출범...“경과·내용 확인”(연합뉴스)	
	8.1		日관방, 한국 '위안부합의 검토 TF' 출범에 “합의 이행이 중요”(연합뉴스)
	8.3		고노 日외무상, 취임하자마자 “위안부합의 착실히 이행” 찬물(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7.30	트럼프 “중국에 매우 실망...북한에 말 말곤 아무것도 안 해”(연합뉴스)	
	7.31	美부통령 “北불량정권 도발 용납못해...中 대북압박 더해야”(연합뉴스)	
		美 “중국, 북한 압박하라” 수위 높여...中 “책임없다” 맞불(연합뉴스)	
		中, 美사드 요격 시험 주목...“북한 화나게 하지 말라”(연합뉴스)	
		“트럼프, 금주 중국 경제제재 결정”...세컨더리 보이콧할까(연합뉴스)	
8.1			中 신화통신, 美 압박에 “분풀이 대상 잘못 찾았다” 반박(연합뉴스)
			中, 미국의 ‘문어발’ 외교 비난...러시아 지원사격(연합뉴스)

	8.2	中, 미국 달래기 나서나..리커창, 美주지사 만나(연합뉴스)	
		“트럼프, 中 ‘지적재산권 도둑질’ 조사할듯...대중압박 시동”(연합뉴스)	
	8.3	中, 美의 ‘무역전쟁’ 선포임박에 바짝 긴장...“전략적 평정 필요”(연합뉴스)	
		왕이, “美, 北 정권교체 추구 않는다” 킬러슨 발언에 환영(연합뉴스)	
		美·中해군,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서 실종 수병 합동수색(연합뉴스)	
		中, 美슈퍼 301조’ 동원 보복할까 경계심...“WTO 규칙 준수하라”(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	----	----	----

미일 관계	7.29	미일 외교장관 통화...“北에 최대한 압력·새 안보리 결의 목표”(연합뉴스)	
	7.30	日자위대 전투기·美공군 폭격기 한반도 인근 해상서 공동훈련(연합뉴스)	
	7.31	트럼프·아베 통화...“北위협 심가, 경제·외교압박 높일 것”(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	----	----	-----

미러 관계	7.29		러, 美외교관 무더기 추방·자산동결...대러 추가제재 추진 보복(연합뉴스)
	7.30	美, 北·러·이란에 거듭 경고...“메시지 이해되도록 할 것”(연합뉴스)	
	7.31		푸틴 “美외교관 755명 퇴출수순”...미러 관계개선 비관(연합뉴스)

		'외교관 755명 퇴출' 러시아 보복조치에 美정부 "부당 행위"(연합뉴스)	
		"美, 北과 거래 러시아 기업도 금융제재 방침"(연합뉴스)	
	8.2	"트럼프, 북한-러시아 제재 패키지법 곧 서명할 것"(연합뉴스)	
	8.3	'北·러·이란제재법' 발효... 김정은 돈줄 죄기 강화(연합뉴스)	러시아, 美 제재법안 서명에 '맞제재' 경고(연합뉴스)
		트럼프, 러 제재법 의회에 "오바마케어도 폐지못한 사람들이..."(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7.31		日 "센카쿠서 中드론 비행 막겠다"...순시선에 전파방해장치 장착(연합뉴스)
	8.1		中, 동중국해에 굴착시설...日 "일방적 가스전 개발 안 돼" 항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7. 29.

■ 한미 軍수뇌부, 北미사일 발사에 첫 군사대응 논의(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의 군 수뇌부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과 관련, 북한에 군사 행동을 취하는 문제를 논의함.
-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이날 조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힘.
- 미 합참은 성명에서 “전화통화에서 던포드와 해리스는 한미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표현했다”면서 “세 명의 군 수뇌부는 또 군사적 대응 옵션을 논의했다”고 설명함.

■ 한미 외교장관 긴급통화…北 ICBM급 미사일 대응 협의(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외교장관이 29일 긴급 전화협의를 갖고 북한의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2차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함.
-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렉스 티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함.
- 통화에서 두 장관은 북한이 쏜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고강도 제재 결의 채택 추진 및 개별국가 차원의 독자 제재 등 단호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임.

2017. 7. 31.

■ 강경화-틸러슨, 8월초 회담서 확장억제협의체 정례화 논의(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8월 초 열릴 외교장관회담에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정례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31일 알려짐.
-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7월 두 차례 이뤄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한미 공동의 대북 억지력 강화 필요성이 커진 점을 감안, 정부는 8월 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필리핀 마닐라)을 계기로 열릴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고위급 EDSCG의 차기 회의 개최 및 정례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짐.

- 정부 당국자는 “고위급 EDSCG 개최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 측의 인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함.

2017. 8. 1.

■ 외교부 “한미, 북핵 모든 사항 어느 때보다 긴밀 공조”(연합뉴스)

- 외교부는 1일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 정권교체 및 미중 사전합의 언급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한미 정부는 북한 핵 미사일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각급에서 북핵·북한 문제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힘.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외교장관 간 통화 등에서 (양측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북핵 대응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며 이같이 발언함.
- 조 대변인은 이어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계기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함.

2017. 8. 2.

■ 한미일 국방당국 화상회의…“北 최대한 압박·3국협력 강화”(연합뉴스)

- 국방부는 2일 “한미일 3국은 북한의 7월 28일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 8월 2일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힘.
- 화상회의에는 한국의 장경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 미국의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대리, 일본의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국 대표로 참가함.
- 3국은 공동보도문에서 “3국 대표들은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나가는 데 있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힘.

나. 한·중 관계

2017. 7. 29.

■ 中, 韓 사드 '추가 임시배치'에 "엄중한 우려" 표명(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2차 발사에 대응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기로 하자 중국 정부가 29일 "엄중한 우려"를 표명함.
- 경쑤(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 측의 유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하는 중국 측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강조함.
- 그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사드 배치는 지역 전략 균형을 심각히 훼손하며 중국의 전략 안전 이익을 침해한다"면서 "우리는 한미 양측이 중국의 이익과 우려를 직시하고 유관 배치 과정을 중단하며 유관 설비를 철거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함.

■ 中매체 '北미사일'에 "중국 책임없다"...사드 불만 표출(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9일 사평(社評)을 통해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추가 도발과 관련해 "북핵이라는 직접적인 위험 외에 사드 등 미국의 전략 자산 집결이 중국 안전의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으며 북핵 문제는 통제력을 잃고 악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함.
- 이 매체는 "중국의 선택은 매우 한정적으로,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저지할 능력이 없고 미국의 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변하게 할 수 없으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강조함.
- 환구시보는 "중국은 지금도 이후에도 사드 배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중국의 결연한 반대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난리가 발생하는 것은 반대하며 중국은 한반도 정치 판도의 변화를 반대하고 중대 사건을 일으키려는 결심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함.

2017. 8. 1.

■ 中, 韓 '사드 임시 배치'에 주중대사 초치 항의(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2차 발사에 대응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기로 하자 중국 정부가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한 것으로 알려짐.

- 1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우리 정부가 사드 임시 배치를 결정한 지난달 29일 김장수 주중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사드 배치 중단과 장비 철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짐.
-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도 김장수 대사를 초치하는 등 사드 관련 반발을 지속해옴.

2017. 8. 2.

■ 韓 ‘사드 임시배치’에 中매체들 “외교·군사 보복” 위협(연합뉴스)

- 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자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자국 전문가들의 발언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국이 사드 배치를 주장하면 한국과 중국의 외교와 경제관계가 장기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언급함.
-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는 “사드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군사 및 국익에 심각한 위협을 주기 때문에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한중 양국 관계의 손상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했으며,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은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드 배치에 외교·군사 조치를 포함한 중국의 보복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함.
- 해외망(海外網) 시사평론가인 귀루이(郭銳) 지린(吉林)대 국제정치과 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사드 배치 가속화는 동북아 정세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사드 배치를 잠정 중단하고 국회 심의 비준과 환경 평가를 완성한 후 재검토하겠다는 결정을 했지만 이는 정치 책략과 우회 수단일 뿐이었다”고 지적함.

다. 한·일 관계

2017. 7. 29.

■ 한일 외교장관도 긴급통화…北 ICBM급 발사대응 협의(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29일 긴급 전화협의를 갖고 북한의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함.
-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전화 협의를 진행함.
- 강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내달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

포럼(ARF)에 나란히 참석하는 계기를 활용해 정식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짐.

2017. 7. 31.

■ 외교부, '위안부합의 검토 TF' 출범...“경과 내용 확인”(연합뉴스)

- 외교부는 31일 오전 서울 도림동 청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위안부 TF)의 1차 회의가 열렸다고 밝힘.
- 외교부는 “위안부 TF는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평가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함.
- 외교부는 이어 “위안부 TF는 연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최종 결과는 대외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함.

2017. 8. 1.

■ 日관방, 한국 ‘위안부합의 검토 TF’ 출범에 “합의 이행이 중요”(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 및 합의 내용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한 것에 대해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1일 밝힘.
-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TF 출범과 관련, “한국 정부 내 움직임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 일일이 코멘트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발언함.
- 스가 장관은 “재작년 말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임을 한일 양국이 확인하고 있다”며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높게 평가받는 합의가 착실히 시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계속 한국 정부 측에 끈질기게 모든 기회에 합의 실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발언함.

2017. 8. 3.

■ 고노 日외무상, 취임하자마자 “위안부합의 착실히 이행” 친물(연합뉴스)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3일 외무상으로 취임하자마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발언함.
- 교도통신은 이날 밤 내각 각료 기자회견에서 고노 외무상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며 이에 대해 위안부

합의 재교섭을 하지 않을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함.

- 이어 “(위안부 문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와 (전임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 시대에 확인한 한일합의로 끝이 났다”고 강조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7. 30.

■ 트럼프 “중국에 매우 실망…북한에 말 말고 아무것도 안 해”(연합뉴스)

- 북한이 이달 들어서만 두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문제에 소극적이라며 중국을 다시 강하게 타박함.
-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며 “우리의 어리석은 과거 지도자들은 (중국이) 무역에서 한해에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도록 허락했다. 하지만…”이라고 발언함.
- 그는 이어 올린 트윗에서 “그들(중국)은 말만 할 뿐 우리를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더는 이런 상황이 지속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함.

2017. 7. 31.

■ 美부통령 “北불량정권 도발 용납못해…中 대북압박 더해야”(연합뉴스)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의 잇따른 시험발사 도발과 관련, 중국의 더욱 강력한 대북압박을 촉구함.
- 에스토니아를 방문 중인 펜스 부통령은 이날 수도 탈린에서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한 뒤 동행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해야 한다”고 발언함.

- 또 “우리는 중국이 그 영향력을 행사해 역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한이 이들 국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수용하며, 도발적 행동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함.

■ 美 “중국, 북한 압박하러” 수위 높여…中 “책임없다” 맞붙(연합뉴스)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2차 도발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미국 정부 인사들이 전방위로 나서 ‘중국의 북핵 책임론’을 내세우며 압박 공세를 강화하자 중국은 “책임이 없다”며 반박함.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 자매지인 글로벌 타임스는 ‘트럼프의 잘못된 트위터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별도 평론을 통해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트럼프가 당황했으나 그렇다고 비난의 화살을 중국으로 돌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함.
- 이 매체는 “트럼프는 중국이 아주 쉽게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북핵 문제에 무지한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결정하고 한미 군사 위협도 무시하는데 어떻게 중국의 제재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고 반문함.

■ 中, 美사드 요격 시험 주목…“북한 화나게 하지 말라”(연합뉴스)

- 미군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을 시험 발사한 지 이틀만인 30일(현지시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요격 시험에 성공하자 중국 관영 매체와 전문가가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며 미국에 경고함.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자 자매지인 글로벌 타임스는 31일 중국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 관변학자인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보다 발전된 기술로 연달아 미사일 시험을 하는 위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을 화나게 하는 대신 진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함.

■ “트럼프, 금주 중국 경제제재 결정”…세컨더리 보이콧할까(연합뉴스)

-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들이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함.
-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제재 논의는 지난 주말에 이어 이날도 계속되며, 이르면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들은 전함.

- 이들은 대중 제재 방안과 관련해 “무역 제한을 비롯해 다양한 옵션이 검토되고 있다”며 “다양한 옵션은 경제제재를 포함한다”고 발언함.

2017. 8. 1.

■ 中 신화통신, 美 압박에 “분풀이 대상 잘못 찾았다” 반박(연합뉴스)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2차 도발을 계기로 미국이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데 대해 “분풀이 대상을 잘못 찾았다”며 반박함.
- 신화통신은 지난달 31일밤 시평(時評)을 통해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한반도 상공에서 무력시위 비행을 한데 대해 “트럼프가 분풀이 대상을 잘못 찾았다”고 비난함.
- 통신은 “중국이 한반도 핵문제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난”이라며 “나아가 ‘중국의 북핵 책임론’ 주장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본말을 전도해 책임을 전가하려는 일부 인사의 꾀꾀에 편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 中, 미국의 ‘문어발’ 외교 비난…러시아 지원사격(연합뉴스)

- 1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미국의 문어발식 외교를 비난하며 러시아의 미국 외교관 추방조치를 옹호함.
- 신문은 러시아가 옛 소련의 십수개 가맹 공화국은 물론 동유럽을 잃고 다당제로 바뀌면서 냉전시기 미국의 요구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렀는데도 미국의 요구는 끝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러시아를 ‘독재국가’로 치부하며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미국을 ‘다리를 셀 수 없는 문어’에 비유해 미국의 대외정책 생산과정이 복잡해 어느 다리를 잡아야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함.

2017. 8. 2.

■ 中, 미국 달래기 나서나.리커창, 美주지사 만나(연합뉴스)

- 북핵문제로 미중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가 미국의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양국이 무역을 통해 서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강조함.
- 2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리 총리는 지난달 30일부터 투자유치를

위해 중국을 방문중인 스나이드 주지사를 만나 양국의 공통이익이 ‘불일치’보다 훨씬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발언함.

- 리 총리는 올들어 양국 정상외 두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다방면에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미중 관계를 위해 이해와 상호 신뢰를 높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함.

■ **“트럼프, 中 ‘지식재산권 도둑질’ 조사할듯…대중입박 시동”(연합뉴스)**

- 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은 복수의 미 정부 관료를 인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자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무역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보도함.
-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철퇴를 가하고자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의 301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면 미국 정부는 중국의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수개월 내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이나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됨.

2017. 8. 3.

■ **中, 美의 ‘무역전쟁’ 선포임박에 바짝 긴장…“전략적 평정 필요”(연합뉴스)**

- 미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관영매체들은 미중 양국이 ‘전략적 평정’을 유지해야하며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제안함.
- 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우신보(吳心伯) 푸단(復旦)대 미국연구센터 주임은 “중미 관계가 기로에 선 것은 처음있는 일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이전 정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양국 관계를 훨씬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로 협상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음.
- 환종썸(阮宗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양국의 경제 불균형은 항상 갈등의 원천이었다면서 하지만 무역제재는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의 문제를 잘못 진단한 데서 나온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하고, “양국의 공통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중국의 대미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왕이, “美, 北 정권교체 추구 않는다” 킬러슨 발언에 환영(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힌 렉스 킬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재확인 발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냄.
- 왕 부장은 3일 베이징을 방문한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터키 외교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킬러슨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그 발언을 중시한다”며 “중국은 미국측이 최근 한반도 안보 문제에 더욱 주목한 점을 지적했다”며 “안보가 문제의 핵심에 있다고 중국은 항상 믿어왔다”고 답변함.
- 왕 부장은 또 북핵 문제 해결에서 관련 당사국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美·中해군,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에서 실종 수병 합동수색(연합뉴스)

- 3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미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의 보도를 인용해 미 구축함 스테뎀함(USS Stethem)이 지난 1일 수병이 실종된 후 남중국해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 해군 함정 2척도 협조하고 있다고 보도함.
- 디펜스 뉴스는 중국 해군이 이번 실종 수병 수색에 협조하는 이유는 해상에서의 국제규칙을 준수하면서 미군과 원활한 소통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이 매체는 미군 장교를 인용해 “이번 중국의 협조는 해상의 불의 사고에 대한 국제규칙이 중국에도 적용된 것이며 중국과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을 증진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면서 “현재의 수색 협조는 양군이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친선을 다져온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함.

■ 中, 美‘슈퍼 301조’ 동원 보복할까 경계심…“WTO 규칙 준수하라”(연합뉴스)

- 중국은 미국이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를 동원한 보복 조치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구성원으로서 WTO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 가오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슈퍼 301조 적용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고 중국신문망이 보도함.
- 가오 대변인은 미국의 보복 조치와 관련한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지적재산권을 일관되게 보호해왔고 성과를 거뒀다며 미국을 겨냥해 WTO 회원국이 무역조치를 취할 때는 반드시 관련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나. 미·일 관계

2017. 7. 29.

■ 미일 외교장관 통화…“北에 최대한 입력·새 안보리 결의 목표”(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29일 북한의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한다는 인식을 함께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렉스 텔러슨 미국 국무장관과의 30여분 간 긴급 전화협에서 ICBM급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의견을 일치함.
- 이들 장관은 북한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2017. 7. 30.

■ 日자위대 전투기·美공군 폭격기 한반도 인근 해상서 공동훈련(연합뉴스)

- 방위상을 겸직 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자위대 전투기와 미국 공군 폭격기가 공동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힘.
-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오전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2대와 미국 공군의 B1 폭격기 2대간 공동훈련이 규슈(九州) 서부에서 한반도 인근 해상 공역에서 진행됐다고 발언함.
- 기시다 외무상은 “지난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안보 환경에서 미일 동맹의 역지력과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안정을 향한 우리나라의 의사와 높은 능력을 보여줬다”고 발언함.

2017. 7. 31.

■ 트럼프·아베 통화…“北위협 심각, 경제·외교압박 높일 것”(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1일 전화 통화를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확인함.
- 백악관은 성명을 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ICBM 발사를 다루기 위해 아베 총리와 대화를 했다”며 “두 정상은 북한이 미국, 일본, 한국과 그밖의 다른

나라들에 심각하고 점점 더 커지는 직접적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힘.

- 이날 통화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미일, 한미일, 그리고 국제사회가 공조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짐.

다. 미·러 관계

2017. 7. 29.

■러, 美외교관 무더기 추방·자산동결…대러 추가제재 추진 보복(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 하원과 상원이 대러 추가 제재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이는 국제 문제에서 미국의 극단적 공격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것이다. 미국이 오만하게 다른 나라의 입장과 이익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자국 주재 미국 공관 직원추방, 미국 외교 자산 압류 등의 보복 조치를 발표함.
- 외무부는 “미국 측에 오는 9월 1일까지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과 상트페테르부르크·예카테린부르크·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서 일하는 외교관 및 기술 요원 수를 미국에 주재하는 러시아 외교관 및 기술요원 수와 정확히 맞출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는 러시아 내 미국 외교 공관 직원 수가 455명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힘.
- 외무부는 이러한 대미 제재 조치를 취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미국이 러시아가 자국 내정에 간섭했다는 완전히 꾸며낸 명분을 내세워 계속해서 심각한 반(反)러 조치들을 연이어 취하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은 국제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유엔 헌장,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은 물론 문명화된 국제교류의 기본적 기준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난함.

2017. 7. 30.

■美, 北·러·이란에 거듭 경고…“메시지 이해되도록 할 것”(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동시에 제재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긴 것과 관련, 반드시 이번 제재의 의미를 이들 3개국에 이해하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함.
-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우방과 동맹국의 협력을

통해 반드시 러시아, 이란, 북한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가 분명히 이해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함.

- 힐러슨 장관은 특히 러시아에 대해 “이들 나라에 대한 제재 법안이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서라는 미국민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면서 “주요 국제 문제에서 미국과 러시아 양국 간 협력이 이뤄져서 제재가 더는 필요 없게 되길 바란다”고 에둘러 경고함.

2017. 7. 31.

■ **푸틴 “美외교관 755명 퇴출수순”...미러 관계개선 비관(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의 추가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자국 내 미국 대사관·영사관 소속 외교관과 현지 직원 등 인력 755명을 감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전(全) 러시아 TV·라디오방송사(VGTRK) 인터뷰에서 “러시아에서 1천여 명의 미국 외교관과 기술직 요원 등이 일하고 있다”면서 “(그 가운데) 755명이 러시아 내에서의 활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푸틴은 맞제재 조치를 취하는 배경에 대해 “러시아는 아주 오랫동안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려왔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변화가 있더라도 단시간에 이뤄질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아무런 대응 없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함.

■ **‘외교관 755명 퇴출’ 러시아 보복조치에 美정부 “부당 행위”(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자국 외교관 ‘퇴출’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AP·AFP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함.
- 미 국무부는 이날 미 정부의 대 러시아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9월 1일까지 미 외교관 755명을 내보내겠다는 러시아 측 발표와 관련, “유감스럽고, 부당한 행위”라며 “이같은 (숫자) 제한이 미치는 영향과 우리 쪽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全)러시아TV·라디오방송사(VGTRK)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에서 일하는 1천 명이 넘는”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 외교관 가운데 “755명이 러시아에서 활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함.

■ “美, 北과 거래 러시아 기업도 금융제재 방침”(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과 불법거래하는 러시아 기업과 관계자에 대해 조만간 금융제재를 발동할 방침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31일 보도함.
- 요미우리는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무역회사가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함.
- 미국 정부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단둥(丹東)시 등지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제재를 부과할 방침인 만큼 중국, 러시아 기업에 대해 동시에 제재를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신문은 보도함.

2017. 8. 2.

■ “트럼프, 북한·러시아 제재 패키지법 곧 서명할 것”(연합뉴스)

- 타스, AP통신 등에 따르면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를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1일(현지시간) 게오르기 크비리카슈빌리 조지아 총리와 회담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 대러 제재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힘.
- 펜스 부통령이 지칭한 대러 제재안은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북한·이란·러시아 제재 패키지법을 의미하며,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차단 등 북한의 자금줄을 끊는 내용을 담았음.
-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대러 제재 해제를 지지하지만, 이는 러시아가 비건설적 행동을 포기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함.

2017. 8. 3.

■ ‘北·러·이란제재법’ 발효…김정은 돈줄 죄기 강화(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함.
-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고 러시아 기업의 미국과 유럽 내 석유 사업에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층에 타격을 주는 방안이 들어감.
- 특히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완화나 정책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하는 규정이 명시됨.

■ **러시아, 美 제재법안 서명에 ‘맞제재’ 경고(연합뉴스)**

- 러시아가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법안에 서명한 데 대해 ‘맞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이날 AF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새 제재는 근시안적이며 러시아와 미국이 특히나 책임감을 품어야 하는 세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러시아는 적대 행위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혔으며 분명히 보복성 조치를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함.

■ **트럼프, 러 제재법 의회에 “오바마케어도 폐지못한 사람들이…”(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사상 최악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이를 의회 탓으로 돌림.
-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서 “우리과 러시아 관계는 매우 위험하며 사상 최저 수준이다”라며 “우리(국민)에게 건강보험조차 줄 수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인 연방의원들에게 감사라도 해야하나”고 발언함.
- 그는 전날 법안에 서명하면서도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위헌 조항을 포함했다”며 “법안은 큰 결함이 있다”고 주장함.

라. 중·일 관계

2017. 7. 31.

■ **日 “센카쿠서 中드론 비행 막겠다”…순시선에 전파방해장치 장착(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소형 무인기(드론)의 자국 영공 침범을 막는다며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전파방해장치를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산케이신문이 31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 해역에 중국 해경국 선박이 진입한 뒤 드론 추정 비행물체가 확인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일본 정부는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전파방해장치를 장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작업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짐.

2017. 8. 1.

■ 中, 동중국해에 굴착시설…日 “일방적 가스전 개발 안 돼” 항의(연합뉴스)

-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에 새로운 이동식 굴착시설을 설치해 일본 정부가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이 가스전 개발을 위해 이동식 굴착시설을 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하순 외교 경로를 통해 “일방적 개발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함.
- 중국은 굴착시설을 동중국해 중일 ‘중간선’의 중국 측 해역에 고정한 것으로 알려짐.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7.29	미 의회 새 제재법, 북한 노동자 송출 겨냥..“연간 10억달러 이상 수입”(미국의소리)
	8.1	“지난해 북 노동자, EU 10개국에 624명”(자유아시아방송)
		카타르 “북한 노동자 비자 발급 2년째 중단”(자유아시아방송)
		FAO “북 재해관리능력 전년보다 하락”(자유아시아방송)
	8.2	미 상원 “북 노동착취 러시아 월드컵 개최 자격 없다”(자유아시아방송)
8.4	유엔·EU “북한 인도주의 위기 위험성 세계 30위”(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8.2	“북, 주민 시신을 짐승 사체 다루 듯 처리해”(자유아시아방송)
	8.3	탈북민들, 춘궁기에 북한 송금 못해(자유아시아방송)
		북, 풀 거름 생산으로 농민들 혹사(자유아시아방송)
8.4	북한 “2005~2016 송환된 여성 6473명...대부분 처벌 안해”(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남한동향	8.1	적십자회담도 불발...정부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8.2	‘올 상반기 태국 유입 탈북자 385명...최근 증가세’(미국의소리)
대북지원	8.1	“러시아 대북지원 밀가루 800t 청진항 도착”(연합뉴스)
	8.3	미 NGO, 북한에 영양쌀 28만5천끼 지원(미국의소리)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7. 29.

- **미 의회 새 제재법, 북한 노동자 송출 겨냥..“연간 10억달러 이상 수입”(미국의소리)**
 - 미국 의회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을 채택함. 북한 정권 유지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줄을 봉쇄하겠다고 함. 현재 북한은 최대 40여 개국에 12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오경섭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센터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북한이 전 세계 20~40여 개국에 11만~12만여 명의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오 부센터장은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3만 명, 중국에 7~8만 명, 쿠웨이트에 4~5천 명, 아랍에미리트연합에 2천 명 등 11만 명에서 12만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음.

2017. 8. 1.

- **“지난해 북 노동자, EU 10개국에 624명”(자유아시아방송)**
 -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10개 유럽국가에서 북한 노동자 624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 자유아시아방송이 1일 입수한 유럽연합 최신 노동허가증 발급 통계에 따르면 유럽에서 북한 노동자를 가장 많이 고용한 나라는 폴란드로 534명, 다음이 54명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한 독일, 이어 15명을 고용한 불가리아임. 이외에도 스웨덴 9명, 이탈리아가 4명, 오스트리아가 3명, 체코에 2명, 그리고 스페인, 슬로바키아와 영국이 각각 1명씩임.
 - 유럽국가에서 2014년에 558명, 2015년에 583명이 일하고 있었고, 지난해에는 한 명도 없었던 네덜란드의 경우 2013년에 387명, 앞선 2010년에도 466명을 고용한 바 있어 눈길을 끄. 그러나 네덜란드에는 2014년 말 노동허가증을 소지한 북한 노동자가 9명에서 2015년과 2016년에는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카타르 “북한 노동자 비자 발급 2년째 중단”(자유아시아방송)**
 - 중동지역 일부 국가에 북한 노동자가 대거 파견돼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벌이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카타르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카타르 언론매체인 도하뉴스(Doha News)는 카타르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함.

- AP통신이 하루 전 중동에 있는 카타르와 쿠웨이트, 오만,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지역 일부 국가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6천여 명이 일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직후에 나온 반응임.
- 카타르 정부 관계자는 ‘2015년 이후 2년 동안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한 비자, 즉 여행사증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도하뉴스에 밝힘. 하지만, AP통신은 2022년 월드컵 본선경기가 열리는 카타르의 건설 현장에 북한 해외노동자 2천명을 비롯해, 쿠웨이트에 2천500명, 아랍에미리트에 1천500명이 파견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카타르 정부 관계자는 ‘한때 과거에 북한과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긴 적이 있지만 월드컵 경기장에 북한 노동자들을 투입한 적은 없다’며 현재 유엔 대북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함.

■ FAO “북 재해관리능력 전년보다 하락”(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위험관리지수를 전 세계 하위 15% 수준으로 평가함.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으며 특히 자연재해대비와 기반시설, 행정력 등이 취약하다고 지적함.
-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을 홍수나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와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규제의 공정성과 언론 자유 등이 보장되지 않아 위험 지수가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평가함.
- 이 기구는 최근 자연재해, 정부능력, 지역사회의 취약성 등 50개 지표를 종합한 ‘2017 위기지수보고서’를 공개함. 북한은 5.6점으로 전체 조사대상 191개국 중 하위 15% 수준인 30위로 평가됨.

2017. 8. 2.

■ 미 상원 “북 노동착취 러시아 월드컵 개최 자격 없다”(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상원의원들은 러시아가 월드컵 축구 경기장 건설에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동을 이용하고 있다며 국제축구연맹(FIFA)에 러시아의 경기 개최권 박탈을 촉구함.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네테즈 의원을 비롯한 상원의원

- 8명은 2일 국제축구연맹이 러시아의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를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냄.
- 상원 의원들은 국제축구연맹이 ‘국제규범을 무시한 나라’인 러시아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도록 한 결정에 실망한다면서 개최권 박탈을 촉구함. 의원들은 러시아 중앙과 지방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강제 노동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비난함.

2017. 8. 3.

■ 유엔·EU “북한 인도주의 위기 위험성 세계 30위”(미국의소리)

-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와 재난 위험이 전 세계에서 30번째로 높다고 유엔과 유럽연합이 밝힘. 재난 대비와 관리 등 대처 능력이 특히 부족하다고 지적함.
- 유럽연합과 인도주의 지원 기구 간 상임위원회 IASC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는 최근 공동 발표한 ‘2017 위험관리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에 5.6점을 부여해, 전체 조사대상 191개국 가운데 30번째로 위험지수가 높은 나라로 선정함.
- IASC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총괄하는 기구로 유엔기구와 국제민간단체기구 등이 가입하고 있음. 위험관리지수는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성이나 폭력적인 갈등으로 인한 위험성, 취약성, 대처능력 등을 기준으로 인도주의 위기나 재난이 발생할 위험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높은 것을 의미함. 북한에서 인도주의 위기나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전 세계에서 30번째로 높은 것으로 평가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8. 2.

■ “북, 주민 시신을 짐승 사체 다루 듯 처리해”(자유아시아방송)

- 남한의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이라는 인권 단체가 현재까지 북한의 집단매장 추정지 47곳을 찾아냄. 이 단체는 북한 주민들의 시신이 “짐승의 사체처럼 다뤄지고 있다”며 북측 당국의 만행을 고발함.
- 이 단체는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 3만 명 중 375분을 대상으로 인권범죄가 어디서 벌어졌는지 그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음. 이 단체는 이 작업을 ‘맵핑’이라고 함. 이 단체는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자연사하신 분들을 물어 놓은

곳이 아니라 북한 당국인 당, 군, 보위부, 안전부에 의해 처형당한 분들의 시신이 묻힌 ‘매장지’를 찾고 있음.

- 탈북민이 사무실에 찾아오면 자신이 살았던 마을을 위성사진으로 보면서 인권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위치를 하나씩 표시함. 교화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시신을 어디에 묻었다는 기억을 가지고 사람들이 존재함.

2017. 8. 3.

■ 탈북민들, 춘궁기에 북한 송금 못해(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민생은 완전히 뒷전으로 미뤄놓고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몰두하고 있어 가을 추수기 까지 버티야 되는 주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또한, 전력난과 가뭄까지 겹쳐 식량난이 더해간다는 소식에 탈북민들은 북한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고 싶어도 지금은 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음.
- 북한에서 가을 추수 때까지가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 사회로 경제적 제재가 심해지고 있어, 북한의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지 못하는 탈북민들이 꽤 존재함.

■ 북, 풀 거름 생산으로 농민들 혹사(자유아시아방송)

-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북한 당국은 농민들에게 과도한 풀 거름 생산과제를 내 주어 불만을 사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함. 특히, 누구보다 가혹하게 혹사당하는 사람들은 협동농민들이라고 함.
- 북한 당국이 김매기를 끝낸 협동농민들에게 과도한 량의 풀 거름 생산과제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감당 못할 풀 거름 생산과제에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이 밝힘.
- 북한이 해마다 농민들에게 강요하는 풀 거름은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풀을 베어 썩혀 만든 두엄을 뜻 한다”며 “올해는 김매기를 끝낸 7월 20일부터 풀씨가 여물기 전인 8월 10일까지 풀 거름 생산기간으로 정해졌다”고 소식통은 설명함.
-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풀 거름 30톤을 생산하려면 매 농민들이 하루 15톤의 잡초를 베어내야 한다”며 협동농민들이 가혹하게 혹사당하고 있음.

2017. 8. 4.

■ **북한 “2005~2016 송환된 여성 6473명...대부분 처벌 안해”(미국의소리)**

-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을 탈출했다 송환된 여성은 6천여 명이라고 북한 당국이 밝힘. 북한은 이들 대부분을 처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북한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 사이 유효한 여행허가 없이 해외에 나갔다 송환된 여성 수가 6천473명이라고 밝힘. 북한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오는 10월 실시하는 북한에 대한 국가심의를 앞두고 최근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힘.
- 북한이 탈북 후 다시 송환된 여성들의 규모를 직접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
- 북한은 이 답변서에서 이들 여성들이 북한으로 송환된 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을 떠날 당시 겪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혹은 인신매매 단체들의 음모의 희생자들로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힘.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이들은 어떤 법률적 처벌의 대상도 되지 않았고, 지금은 모두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은 또 송환된 여성들 가운데 처벌은 받은 사람은 33명이라며, 이들은 해외 체류 중 살인 미수와 마약 거래 등 중대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라고 덧붙임.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국제사회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것임.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8. 1.

■ **적십자회담도 불발...정부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연합뉴스)**

- 북한이 군사당국회담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해 1일 개최를 제안한 적십자회담에도 끝내 응답하지 않음.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17일 정부는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함.
- 정부는 당시 군사분계선상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지난달 21일, 적십자회담을 8월 1일에 열자고 각각 제안했음.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8. 2.

■ ‘올 상반기 태국 유입 탈북자 385명…최근 증가세’(미국의소리)

- 태국으로 불법 유입되는 탈북자 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태국에 올 상반기 385명의 탈북자가 도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 보도함. 통신은 태국 이민국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지금도 매주 상당수 탈북자들이 태국에 도착하고 있다고 밝힘.
- 익명을 요청한 태국 이민국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태국 북부 지역에서만 매주 평균 2-30명의 탈북자들이 도착한다고 말함. 이 당국자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 3국 국경이 만나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근처의 태국 북단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고 밝힘.
- 또 다른 당국자도 이 같은 추세를 확인하면서, 많은 탈북자들이 라오스와 국경을 마주한 농카이와 나콘파놈 등 동북부 지방을 통해 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함.

5. 대북지원

2017. 8. 1.

■ “러시아 대북지원 밀가루 800t 청진항 도착”(연합뉴스)

-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하는 밀가루 800t이 지난달 31일 함경북도 청진항에 도착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 페이스북을 인용해 1일 보도했음.
- 이 밀가루는 러시아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강원도와 양강도 지방의 어린이와 수유모,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보충제와 고열량 비스킷을 제조하는 데 쓰일 예정임.
- 청진항에서 진행된 밀가루 전달식에는 러시아 측에서 알렉산드르 미나예프 수석 참사관이, WFP에서는 스벤 텔린 평양사무소장 대행이 참석함. 앞서 러시아는 WFP 대북 영양 사업을 통해 지난달 중순 밀가루 2천400t을 북한에 보냄.

2017. 8. 3.

■ 미 NGO, 북한에 영양쌀 28만5천끼 지원(미국의소리)

- 미국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본부를 둔 국제 구호단체 ‘라이즈 어게inst 허저 (Rise Against Hunger)’가 가뭄으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에 최근 영양 쌀을 지원함.
- 이 단체의 캐런 쿡 언론담당관은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12일 한 개 컨테이너 분량의 영양 쌀 28만 5천 끼를 배편으로 북한에 보냈다고 밝힘. 이 단체는 지난 2월과 5월에도 각각 한 개 컨테이너 분량의 영양 쌀 28만 3천 끼를 북한에 보냄.
- 쿡 담당관에 따르면 라이즈 어게inst 허저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북한에 보낸 영양 쌀은 총 86만 끼에 달함. 영양 쌀은 흰쌀과 콩, 비타민 등 23가지 영양소가 첨가돼 있으며, 죽 형태로 끓여 먹을 수 있음.
- 쿡 담당관은 영양쌀이 미국의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지원하는 북한 내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환자들에게 제공된다고 밝힘.